

## 설 화

차 례

1. 곱은소 이야기
2. 원당할망 이야기
3. 자원당 이야기
4. 문어와 바다재 이야기

신평리는 지리적으로 위로는 산과 아래로는 바다를 접해있어 산과 오름은 물론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설화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해지거나 조사과정에서 얻은 대부분의 이야기는 시집살이와 같은 사소한 것들이어서 수록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 1. 곱은소 이야기

<조사자: 할머니 혹시 곱은소라고 알아마썸?>

곱은소? 지금은 공사하고 허당보난 지금은 터도 몰라. 곱은소 원래 물막 귀혈띠 거기 물 먹고 해서 사람들 글로 못가게 해주게. 거기가 잘도 깊고 구불구불 허난 곱은소랜 불릿져.

<조사자: 거기 막 귀신나온텐 굴암계만은……>

곶은소 옛날에 사람들 빠져서 죽기도 했주게. 나가 옛날에 이 진동산 큰물 이신디 거기 고사리 꺾으래 네시에 갔주게, 가당보민 물에빠져 죽는 소리도 나서. 할망신디 들어서 빨래 소리도 나고 싸우는 소리도 나고 귀신나타냥 경헛텐 해서.

그디가 잘도 깊고 어둡고 하난 여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 하다. 거기 일절 햇빛도 안 받고 현 덴디 그디 도부상 있잖아, 거기서 쉬면서 거디 살피난 거기 늦대야 떠이신 거라. 경행 그거 건질러 들어가당 빠져 죽어신디, 그 뒤로 곡소리가 안난땡 조상님이 곱아라게.

<제보자: 오일생(93세)>

신평리의 설화는 대부분 곶은소 이야기이다. 곶은소는 현재의 성산읍 신평리와 표선면 성읍리 사이를 흐르는 천미천에 있던 연못이다.

그곳에서는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소리, 빨래소리,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등이 들렸다고 한다. 어느 날 도부상이 근처에서 쉬다가 곶은소에 늦그릇이 떠있는 것을 보고 주우려다 빠져 죽었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그 후에는 소리가 멈췄다고 한다.

이곳에서 들린다던 귀신소리나 빨래소리는 구불구불하고 깊은 곶은소의 물소리라 생각된다. 곶은소는 물이 귀할 때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곳이었는데 유사시를 위해 사람들의 출입을 자제시키고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안타깝게도 조사 당시 곶은소는 공사로 인하여 터를 찾아 볼 수 없었다.

## 2. 원당할망 이야기

<조사자: 마을에 원당할망 이야기가 있덴 행계만은 알아지쿠과?>

원당할망? 강씨 하르방이랜 그 사람 제사모시는 집이 이신디 거기강

물어보면 알아질건디. 나한테 물엉 뭐하크나?

<조사자: 아는거라도 골아줍서게.>

하르방이 어덜 지나가당 굿허는 여자를 본거라. 겐디 그 여자가 막 이 뼈부난 가이를 데령왕 부인으로 삼았져. 겐디 그 하르방이 굿 못허게 할 망을 가뉘분거라. 경허당 하르방이 서울로 과거보래 강 내려왓신디 제주시 원당오름 지금은 뭐랜 험신고게.

<조사자: 삼양에 있는 원당봉마썰?>

아니아니게. 그 사라봉게. 그게 원당오름이라. 암튼 이 할망이 굿을 못 허난 답답허그네 거기서 불타 죽어분거라. 경해비난 보통사람도 조심하고 피행댕기멍 원당할망 원당할망 했져. 그집의 딸이 사돈이랑 이집에 와신디 그디 부텡강이네 못견디게 굴기도 해서.

그 할망이 죽으멍 고르기를, 나 죽으른 고팡에 음식을 차리랜 골았쥬. 게난 그 주위 사람들이 원 풀어주켄 허멍 고팡에 상을 차리고 원을 달래 준거라. 나중에도 무당이나 데령왕 굿하고 또 이녁집에 무당 올일이서도 그 할망을 우선행 크게 막 정성들여서.

<조사자: 그 후엔 어떻게 된 마썰?>

거 칠성이라고 알아지크나?

<조사자: 칠성이 뭐파? 사이다파?>

칠성이 뭐낸 허른 그 강씨 하르방 집에 있는건디. 그곳에 원당할망을 모성 고팡에 음식도 차리고 하는 곳을 칠성(칠성눌)이랜 험져. 그 칠성에 모섬주게.

<제보자: 오일생(93세)>

신평리에는 옛날에 강씨 하르방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무당이였다고 한다. 강씨 하르방이 아내에게 굿을 못하게 하니 답답함을 못이겨 원당봉(지금의 사라봉)에서 스스로 불타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원한은 딸에게까지 따라다녔다고 한다. 이에 그 원한이 남았다고 믿은 사람들은 '원당할망, 원당할망' 하면서 피했다고 한다. 이에 사람들은 그 할망의 유언에 따라 고팡에 정성들여 상을 차려 원한을 풀어 주었다고 한

다. 이후 강씨 집안에서는 칠성놀이라는 곳에 원당할망을 모신다고 한다.

신평리와 사라봉은 지리적으로 반대편에 있는데 이야기에 나오는 원당봉이 지금의 사라봉이라 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과거시험을 보러간 강씨 하르방을 마중하거나 기다리기 위해 원당할망이 그곳으로 갔다고 추측만이 가능할 뿐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원당할망과 고팡에 대한 연관성에도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 3. 자원당 이야기

<조사자: 안녕하세요.>

어떻 여기까지들 와서.

<조사자: 할머니신디 옛날 얘기 들젠 찾아완마썸.>

이 할망신디 들을 얘기가 뭐있덴..... 학생들이라?

<조사자: 네. 다 제주대학교 학생들마썸.>

우리 손지들도 제주대학교 손지들인디. 시험 볼 때 막 기도도 했져.

<조사자: 기도할 때는 어디강 기도합니까?>

자식들이 시험보거나 얘기가 편안하거나 하젠허민 여자들이 냇가에 가서 빌어서.

<조사자: 무사 냇가에는 귀신이라도 이서마썸?>

본향하르방은 한라산에서 내려온 령인디 본향이라고 한 건 하르방이라. 거기있는 자운당은 큰각신디 옛날에 큰각시는 부엌가고 하난 막 더러웠고, 죽은어명은 깔끔한사람인디 고쳐당이라.

자원당에 할망 귀신이 있덴해서 시험보는 날이나 아프거나 해도 돈이 조금드난 가는거라. 저기 본향에 가젠허면 작아도 십만원이나 과일도 바구니로 들어가는디 자운당가면 돈도 30원이나 과일도 하나, 두 개 떡도 하나 아니면 두 개 가정가는거라. 제사는 아니고 이녁냥이 강이넝 비는거 주게. 자운당 할망신디 우리 아이 시험잘보게 해줍서, 아프지 말게 해줍서

하는거라. 고처당은 하천리사람들 가고 신흥리 사람들은 자원당 가서.

<조사자: 그 자원당이 더러운 곳이파?>

아니 그 하르방 각시가 더럽게 살아부난 거기강 씻으멍 살랜 보내서, 공부도 못하는 사람은 거기보녕 공부 좀 잘허게 해줍써 하믄 그 할망이 잔정이 많아브난 공부도 잘허게 해주고 경해서. 거기는 귀신이 더 붙지도 안허고 떨어지지도 안허고 허난 싸운사람도 가고 답답한 사람들도 가그네 경 현다.

<제보자: 김정자(77세)>

이 곳 신흥리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야기가 거의 분풀이나 한풀이 쪽으로 통한다. 그 대표적 이야기가 자원당 이야기다. 이 곳은 자식들이 시험을 본다거나 아기가 병을 앓거나 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찾는 곳이라 한다. 특별히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이곳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본향 하르방(한라산에서 내려온 령)이 한라산에서 내려올 때 큰각시와 작은각시를 데려서 내려 왔다고 한다. 큰각시는 부역을 자주 오가며 몸이 더러워 하르방이 자원당으로 가서 씻으라 하여 보냈고, 작은며느리는 깔끔한 사람이라 매일 같이 씻기 위해 고처당에 갔다고 한다.

여기에 영이 있다고 여긴 사람들은 답답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하천리 사람들이 고처당으로 가는 반면, 신흥리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자원당으로 갔다고 한다. 본향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자 하면 준비할 것들이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반면, 이곳은 큰 부담 없이 조출하게 준비하여 제사를 올리기보다는 기도를 올리는 곳으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한다.

#### 4. 문어와 바다제 이야기

<조사자: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수과?>

바당? 문어 알리지크냐? 문어가 다리가 8개 짱아이. 그게이 뱀이 8갈래로 갈라정 경 된거라.

<조사자: 뱀마씨? 산에 사는 뱀예?>

어게 그 뱀게. 그 뱀이 어느 날 바다에 내려온거라. 옛날부터이 바당에 가문 용왕이 있던 하자나이.

<조사자: 용왕마씨? 용왕이른 그 바다의 왕마씀?>

용왕이 그거 말고 더 이시냐. 그 용왕이주게. 게난 뱀이 그 용왕 앞에강 춤을 추난 오답갈래로 나누어정이네 문어 다리가 됐주게. 경행 문어가 바다에 사는거라.

<조사자: 문어 이야기 말양 다른 이야기는 어수과? 그런거 이심 하나 더 해줍서.>

그런게 또 뭐이시. 난 모른다게.

<조사자: 바다에 가문 거북이도 있고 물고기도 있수게.>

물고기? 그럼 하나더 해주켜. 바다에이 거북이나 고래 죽은게 떠오자나 이. 그러면 남자들은 괜찮은디 여자들이 난리치명 그 시체를 바다에 다시 버리면서 제를 하는거라.

<조사자: 무사마씀?>

그 뭐냐게. 불길허니까게 잘 봐달랜 용왕한테 비는거주게. 광목에 싸낭 이네이 바다 한 가운데 강 제를 올리는거라.

<조사자: 광목은 또 뭐과? 우리는 모르큰디.>

광목? 거 있자냐게. 옷으로 입는거게. 걸로 감쌍이네 바다에 갖다노명 제를 하는거라.

<제보자: 허울용(58세)>

기대와는 달리 바다와 관련된 설화는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나마 채록한 설화도 단편적인 이야기였다. 먼저, 문어 이야기는 산에 살던 뱀이 바다로 내려와 용왕님 앞에서 춤을 추니 오답가닥으로 갈라져 문어다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바다제 이야기는 어느 날 바다에 거북이나 고래 등의 시체가 떠내려

오면 여자들이 난리를 치며 그 시체를 바다에 다시 돌려 버리며 제를 지냈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그것이 바로 용왕님께 주는 제물로 생각한 것이다.

■ 조사자 : 김재현(05), 장영근(06), 고민석(06), 김예진(10), 김경애(10), 김은석(10)